

##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변윤미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증기과정 1기, 한동대 졸업

한동대의 대표적인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내린 나의 결론은 ‘사랑’ 이었다. 어떤 기술이나 학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써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덕에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많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 난 평생 학자의 길을 걷겠구나..’ 싶을 정도로 공부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와서는 공부만큼, 혹은 그 이상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대학 2.0 시대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능동적으로 산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예로, 기증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나눔운동’은 쓰레기로 버려질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수익금과 현물로 이웃에게 사랑도 흘러 보내는 역할을 했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학교 내 ‘Giving Tree’ 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는데,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어 해외아동 결연후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교내 청소·경비·운전·식사준비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 「Thanks Day」가 기억에 남는다.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면 어

쩌나 싶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분위기, 나아가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 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복지와 공법을 전공하고, 상담심리를 부전공으로 공부한 나였기에, 사실 졸업을 앞둔 4학년까지 언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크리스천으로서 미디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허튼소리 탐지기- 미디어 속 세계관”이라는 세미나였다. 창조과학동아리의 일원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미디어에 만연된 잘못된 세계관의 폐해와 그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방송은 특성상 일반 목소리를 압도하는 마이크와도 같아서 방송 제작자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방송에서는 광고를 비롯, 심지어 객관적인 모습을 기록한다는 다큐멘터리에서조차 진화 등 비성경적인 내용이 사실처럼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직하고 올바른 기독교 언론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방송 관련 아무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PD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건 그 때부터였다. 크리스천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해도 기독교적 관점과 메시지를



방송은 일반 목소리를 압도하는 마이크와도 같아서 방송 제작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조차 비성경적인 내용이 사실처럼 다루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담아내기 어려운 방송 분야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5)”

나는 사회복지전문 PD가 되어 우리 사회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한 사회의 뿌리는 가정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개인도 사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피가 튀는 잔인함과 끔찍함 때문에 공포영화도 잘 못 봤었는데, 미드 ‘CSI과학수사대’와 ‘Criminal

Mind’를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 지는 것 같다. 증거를 추적하며 범인을 잡는 CSI를 보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창조의 증거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행동분석을 통해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Criminal Mind를 보면서는 범죄 성향이 형성되었던 가정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폭행을 포함한 가정폭력, 불화, 이혼, 무관심과 버려짐 등의 가정 환경에서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은 인격장애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의 시작점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인 ‘가정’에 초점을 두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의 마중물로 역할 하는 방송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과정에 참가하게 된 것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기독교 세계관’과 ‘방송기술’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기독교인론인의 모습을 그려본다.

Change the world with clean contents!  
People need God's people.